

HOME >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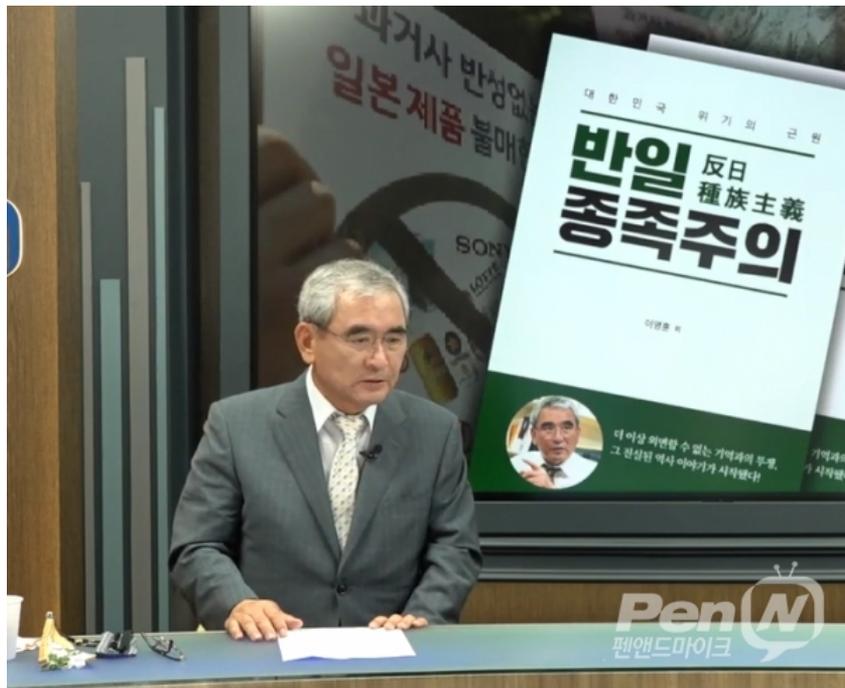
# MBC 주진우, 『반일종족주의』 저자 등 거론하며 “세상이 어지러우니 친일파 날뛴다” 극언...책 내용 비판은 하지도 못해

김진기 기자 | 최초승인 2019.07.23 16:34:37 | 최종수정 2019.07.24 11:40 | 댓글 42

## 관련기사

▶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 사무실 찾아와 난동 부린 괴한...

22일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한일(韓日)갈등에서 일본정부 편드는 친일파 우후죽순 드러났다며 선동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비롯한 연구자들도 '친일파'...“『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도 경부선 라인에서만 열렸다” 이번 한일(韓日)갈등, 친일파 제거 계기 되어...“한일관계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주장 낙성대경제연구소 및 이승만학당 관계자, “책이나 논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반박 못해”



방송인 김의성과 주진우가 월요일 밤 10시마다 진행하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 22일 방송에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위시로 한 학술 연구자들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으로 낙인찍으며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중파 방송으로부터 일방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이날 방송에 대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스트레이트'는 방송인 김의성과 주진우가 MBC 기자 두 사람과 둘러 앉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22일 방송에서 “추적, 아베에 화답하는 조선일보와 친일세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김의성과 주진우는 국내 친일파들이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도 인정한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일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대법원 판결들을 옹호했던 지점과 거의 같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이트'는 이달초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강제징용'이 날조됐다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장한 시점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발동된 시점이 거의 같으며 모두 한통속인 것처럼 자극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방송에서 친일파 집단으로 매도됐다.

이어 '스트레이트'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겸 이승만학당 대표 등이 저술한 『반일종족주의』 북 콘서트가 서울,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라인에서만 열렸다고 전했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그러자 김의성은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식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에 빚어진 한일갈등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을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며 주진우는 이영훈 명예교수와 이우연 연구위원 등의 사진을 띄워놓고 "나라가 위기다. 세상이 어지럽다. 그러자 친일파가 여기저기서 날뛰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박진준 기사는 "표면적인 갈등만 수습할 게 아니라 한일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바로 세워야한다는 식의 입장을 덧붙였다.

방송 클로징멘트에서 김의성은 "친일파, 제가 좀 해봐서 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다"라며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인물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는 "100년 만에 일본 발 위기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런데 친일의식을 가진 이른바 토착왜구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동하는지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이 나오는 중에 방송화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등의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을 비추고 있었다.

23일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이승만학당 관계자는 펜앤드마이크에 MBC '스트레이트'의 편파적 보도에 여러 경로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을 본 관계자는 "『반일종족주의』 책 내용이나 우리의 논문 내용에는 일절 반박하지도 못하고 저자 개인들에 대해서만 마구 깎아내리는 비열한 방식이라 대응 방안을 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mailto:mybeatles@pennmike.com)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03149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 대표전화 : 02-2138-5881 | 팩스 : 02-730-0989  
명칭 : (주)펜앤드마이크 | 제호 : 펜앤드마이크(PenN)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63 |  
발행인 : 정규재편집인 : 이창섭 | 등록일 : 2017-12-06 | 발행일 : 2018-01-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연희  
펜앤드마이크 penn@pennmike.com / 기사제보·보도문의 pennjebo@pennmike.com  
Copyright © 2019 펜앤드마이크. All rights reserved.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윤리강령

